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제일 먼저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야만 한다. 마음을 성찰함으로써 본성을 실현하는 법을 알면 우주의 본성조차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한다. 종교는 안내자로서만 이해되어야 하며,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로이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인생의 목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자.

우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지나치게 영리해서 달까지 정복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떻게 마음을 성찰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인간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이용하는 법과 본성을 실현하는 길을 알 수만 있다면 드디어는 전 우주의 본성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무지에 덮여 있다. 인간이 오늘날만큼 자기 본성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두고 놀라고 당황한 적은 없었다. 또한 자기의 본성에 대해서 말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적도 없었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도대체 인간 자체는 무엇이며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인간에 대한 그릇된 해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이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망각해 버린 존재라는 데에 기인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진정한

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릇된 본질을 자기로 오인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면으로 자신을 가장하기도 하며 자기 존재의 근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무지(無知)한 것은 자식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지식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완전한 깨달음이나 인생의 진정한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모든 위대한 스승들도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났다. 물을 탱크 안으로 붓듯이 계시와 깨달음을 마음속으로 부어 넣을 수 없다.

직관은 인간 능력의 후천적 발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붓다조차도 인간의 진정한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광란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자의 수용소와 같다고 느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같이 괴롭히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일반적 구제방법을 찾고 싶었다. 누구나 인간은 붓다가 될 수 있고 진리에 관한 붓다의 이해와 깨달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종교에 귀의해야

그러나 우선 자기 마음속의 꿈, 망상(妄想)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한다. 인간은 깨어 있어야 하며 현재의 자기는 수없이 많은 사고와 행동이 반복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완성의 존재이며 지금도 여전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인간의 성격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된다. 그는 그가 선택한 생각과 행동 그대로 되어간다. 인간은 '진화'라는 나무에 열린 최고의 열매이다. 자연 속에서 그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진실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차라리 달콤한 꿈이나 상상에 의해서 그릇된 안정감 속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본질의 껍데기만 취한다.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조차도 외면하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와서 그들을 데려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올바른 마음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용기와 안정을 주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안겨 준다.

죽음은 일시적 존재의 종말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출발하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은 마음 먹은 대로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번번이 우리는 커다란 문제와 곤란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는 사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인생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인생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세속적 행복이 꿈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부(富), 사치, 높은 지위 그리고 상류 사회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현대문명이 그나마 행세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물리적으로 쉽고도 편안하게 해 주는 과학의 업적 때문이다. 주방과 목욕탕의 전기장치는 엄청난 정도로 가정생활을 간편하게 해 주는데 특히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하다.

그러나 행복의 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수면제 복용율과 정신병원의 입원율 그리고 자살율은 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노심초사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모든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 여전히 그에게는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할 인생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종교에 귀의해야 하며 어느 한 종교를 선택해서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완전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의 가장 큰 힘이며 점차적으로 인간을 자기 각성으로 이끈다.

종교는 천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며 이기적인 이를 이타적으로, 거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오만한 사람을 관대하게, 탐욕스런 사람을 후하게, 무자비한 사람을 친절하게 그리고 편파적인 사람을 공정하게 만든다. 불완전한 대로 모든 종교는 차원 높은 삶으로의 도달을 표현한다.

고대로부터 종교는 인간의 예술적, 문화적 측면의 원천이 되어 왔고, 비록 많은 형태의 종교가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렸다 해도, 그들 종교들은 당시의 인간 진보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해 왔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7]

'진아(眞我)와 가아(假我)의 실체를 말한다'

가아(假我)인 나라는 존재, 즉 마귀로 인해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 인간은 괴로운 것이다. 지금의 나는 가아(假我)이며 6,000년 전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선악과가 되는 마귀인 것이다.

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나라는 욕심의 영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나라는 마귀다.

이 나라는 마귀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 분열, 싸움이 생겼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나라는 의식은 욕심이 끊어지면 일어나는 영이다. 한 가지를 얻고 나면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

그러므로 고통의 근원인 나만 없으면 괴로움과 불행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6,000년간 하나님을 지배해 오면서 인류를 사망으로 끌고 간 하나님의 철천지원수 마귀인 것이다.*

이기는 삶

포기라는 단어는 잊어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좋은 일로만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날씨가 일년내내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땅은 사막화 되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가 와야 대지를 적셔서 만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법이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일반 계속된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고 인쇄하면서 노력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희망은 언제나 고통의 언덕 너머에서 기다린다.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평화와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에드거 앨버트 게이트는 포기하고 싶은 자신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있다.

'이따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험한 비탈을 힘겹게 올라갈 때, 주머니는 텅 비었는데 갈을 곳은 많을 때, 웃고 싶지만 한숨지어야 할 때, 주변의 관심이 되레 부담스러울 때, 필요하다면 쉬어가야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지! 인생은 우여곡절 굴곡도 많은 법. 사람이려면 누구나 깨닫는 바이지만 수많은 실패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계속 노력했다면 이루어졌을 일. 그러니 포기는 말아야지.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한 번 더 노력하면 성공할지 누가 알까! 성공은 실패와 안팎의 차이, 의심의 구름 가장자리에 빛나는 희망, 목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무도 모를 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울지도 모르지, 그러나 언어맞더라도 싸움을 계속해야지, 일이 안 풀리는 시

가야말로 포기하면 안 되는 때!' - 에드거 앨버트 게이트

포기를 모르는 일개미 한 마리가 보리알을 물고 담벼락을 오르는데 예수아홉 번을 떨어지던 뒤 일흔 번째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이 있다. 성공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끈기'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끈기가 없으면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포기할 줄 모르는 개미의 끈기를 배우자.

성공의 비결은 오히려 간단하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베토벤도 한 곡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열두 번을 고쳐 썼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원고를 80번이나 퇴고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는데 8년이 걸렸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에 10년을 비쳤다. 조지 반크로프트는 미국의 역사를 쓰는데 26년을 쏟아부었다. 노아웰스터가 '웹스터 사전'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시간은 36년이었으며 아담 클라크가 성서 주해를 쓰기 위해 보낸 세월은 40년이였다. 야구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서 톰 행크스를 연기한 지미 킷슨은 이렇게 말했다. "힘들 것이다. 힘들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비로소 위대해진다."

위대한 승자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모두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다. 둘째, 그들은 모두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리고 셋째, 아무리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포기란 없었다. 모두가 포기할 때 한 발 더 내딛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붓다가 어느 때 말했다.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정복된 자는 불행하기 때문이다.

승리와 패배 둘 다를 포기한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

위대한 종교의 힘은 욕망을 잠 재운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를 믿음으로써 욕망을 잠재우고 정신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붓다가 어느 때 말했다.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정복된 자는 불행하기 때문이다. 승리와 패배 둘 다를 포기한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

한 유명한 작가는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을 낸다. 나는 거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구태여 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가난하다. 저축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부자이다. 그들은 가난하고 나는 부자다. 그들은 구걸하고 나는 배운다. 그들은 부족하고 나는 넉넉하다. 그들은 어리고 나는 활기차다."

욕망을 고요히 잠재우는 비법은 장애의 뿌리인 갈매를 제거하는 것이다. 붓다가 말한 것처럼.

'세상 쾌락의 즐거움과 하늘나라의 큰 기쁨도 탐욕을 버렸을 때의 기쁨에 비하면 그 16분의 1도 되지 않는다.'(법구경)

만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산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고통받게 된다. 재산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오늘날 이 세상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각가지 병으로 괴로워한다. 그러한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해결책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을 살 수는 없다. /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을 살 수는 없다. /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운 옷을 살 수는 없다. /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가정을 살 수는 없다. /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고급품은 살 수 있으나 평안함을 살 수는 없다. / 돈으로 유희는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해탈을 살 수는 없다.

비록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만족하는 방법을 알면 부유한 사람보다 더 유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훨씬 적은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기 때문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만족하는 방법과 감각을 가라앉히는 방법 그리고 정신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대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찾을 것이다.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 왔으며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음을 명심하라. 종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은 세속적인 쾌락을 통해서만 찾아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속성은 영원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진정한 만족을 얻고 싶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화려한 집에서 살고 고급 호텔에서 향연을 베풀며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자 한다면 탐욕의 본질 또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탐욕의 위험을 표현한 짤막한 시가 있다.

저 죽는 줄을 모르고 나방은 불 속으로 뛰어든다. 저 죽는 줄을 모르고 물고기는 낚시바늘을 삼킨다. 그러나 이 사악한 세속적 쾌락의 그 위험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미친듯이 갈구하느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여.

붓다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깨달으려면 욕망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인간의 욕망은 묘해서 우리가 그 요구를 자상하게 들어주면 줄수록 점점 요구를 늘려 간다. 쾌락에 대한 갈증을 풀기는 쉽지 않다. 만족은 욕망의 이러한 열광적인 태도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욕망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제야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즉 그것은 영원한 행복의 발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인생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이다.

인생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인생은 우리가 활용하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삶의 목표는 결코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